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98 홍해작전 6월 6일(토)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98 홍해작전이 6월 6일(토) 새벽 5시에 시작된다.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25일(목)까지 20일 간 새벽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진행된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이며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막14:42)로서 민족, 교회, 가정, 개인의 회개와 신앙부흥 그리고 새 예배당 건축 등의 일곱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드리게 된다(표).

또한 ① 모두 함께 기도하며 국가 위기 극복한다 ②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③ 경건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천국시민의 삶을 훈련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홍해작전 첫 날인 6일(토)과 마지막 날인 25일(목)은 전 교인 총진군의 날이며 순전감사 예배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 드리게 된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걸어서 홍해를 건넌던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프로그램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하는 홍해작전은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제 13학기 목회자세미나 내일 종강 "경건과 절제"를 생각해 본 세미나

로마서강해도 대단원의 막내러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6월 1일(월)에 종강한다.

3월 30일(월)에 시작하여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계속돼 온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는 IMF시대를 사는 오늘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경건과 절제"를 주제로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 갱신, 한국교회 회개운동, 한국교회 각성운동 등을 살피는 한편 목회자의 언어 습관·생활·건강관리·가정관리 등 이번 학기 주제에 따른 특강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제 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때부터 계속해 온 로마서 강해가 이번 학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1994년 3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 이흥 학기를 통해 제 1교시에 진행된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는 로마서 연구와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그간 로마서 1-11장까지는 "로마서 I·II·III"으로 필그림출판사에서 출판된 바 있으며 실천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조만간 "로마서IV"로 엮어져 출판될 예정이다.

찬양대원세미나 6일 개최

찬양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는 찬양대원의 영적 성숙과 음악적 자질향상을 위해 6월 6일(토) 찬양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와 대청소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한 후 7시 50분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의 설교는 이종윤 목사가 맡았다.

예배 후 음성학(08:00 ~ 08:50), 이상적인 합창소리의 조건(09:00 ~ 09:50), 합창연주(10:00 ~ 10:50) 등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되며 11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 세미나 찬양대원 전원의 참석이 요망되며 찬양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98 홍해작전 기도제목

1.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를 개인과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2.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온 백성이 실의와 절망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립니다.
3. 주여! 새롭게 하소서
분열된 교회와 분단된 조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4.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5. 주여! 동행하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6. 주여! 속히 이루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7. 주여!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공동의회

장로선출에 관한 건

1. 때: 1998년 5월 31일(주일) 찬양예배 후
2. 곳: 1층 예배실
3. 참가대상: 본 교회 세례교인
4.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 투표용지에 10명을 표시하여 투함, 1회 투표

이사야 강해

이사야의 사명

이사야 6장 8 - 13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들으신후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1.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기쁜 소식은 즐겁고 신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해야 할 소식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음화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9절). 망할 백성에게 망할 것이라고 외칠 때 그들이 깨달으면 좋겠거니와 그들이 못 깨달을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돌을 맞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둥에도 크게 써 붙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9절)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는 별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망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2. 회복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십니다(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과 귀를 완전히 감기고 막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지만 그들은 평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 방법으로 인간을 무지와 편견 가운데 내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진리를 조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감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헤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5)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악한 것 같고 죄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좇아사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불신자들의 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입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그 중에 심본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8-13)



이종운 목사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3. 이스라엘은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나”고 묻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할 때까지 이들의 눈이 감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십니다.

성읍에는 거민이 없고 가옥에는 살 사람이 없으며 온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땅은 경작되지 않은 채 황폐하고 온 땅에 온역과 기근과 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발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하며 그 땅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서 살아남은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훈입니다.

4. 남은 그루터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림을 받으나 마지막에는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열의 하나까지도 진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루터기만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제도는 온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에서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아직도 죄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루터기에 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인 것은 다 빼앗기고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생명을 팔아케 하고 그 민족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루터기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사명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4지방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바른 지역 일꾼을 뽑읍시다!”

6·4지방선거 후보자 점검을 위한 20개항

■ 정책과 비전

1. 정책의 내용은 그의 역할(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합당한가?
2. 정책은 시민들의 각 분야 관심사를 망라하며 균형성을 갖고 있는가?
3. 정책의 내용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4.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한가?
5. 정책의 내용은 특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정책에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그 대안을 담고 있는가?
7. IMF 시대 지역 경제에 대한 대안과 분배정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8.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과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민주적 추진력

1. 공공경영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2. 지방 행정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개혁의지가 있는가?
3.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가?
4.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개혁과 부정부패를 추방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5. 사람에 대한 통솔력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는가?
6. 주변이나 소속 정당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가?
7. 소속 정당이나 소속된 사회 활동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선호하는가?

■ 인격과 생활

1. 삶의 일관성: 정책의 내용을 보증하는 인간적 신뢰성을 삶의 궤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가? 인기성 발언이나 선심공약들을 남발하지 않으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거짓말이나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2.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자녀 교육에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3. 평소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적이 있는가?
4.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고, 차세대 인물들을 키울만한 도량이 있는가?
5. 독서를 즐기며, 올바른 취미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료 제공: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 찬양대원세미나에 붙여

하나님께 장엄한 영광의 찬양을!

이태상 (집사, 찬양위원회 서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로다. 아멘.” (계7:12).

이 성경구절에 나타난 노래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의 화답찬양이다.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각종 인종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함(계7:9-10)에 대해 화답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인 것이다.

헨델의 메시아 제 53번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장엄함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되곤한다. 하물며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온 세상과 천상의 모든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웅대하고 장엄하며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의 소리는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찬양은 하나님 면전에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겨워 기분을 돋구게 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찬양과 경배도 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졌으며 어느 것이 진정한 찬양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에 대한 주장 또한 매우 분분하다.

역사적으로 볼때 찬양은 교회의 부흥이나 갱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가톨릭에서는 1903년 교황 피우스 10세에 의해 교회음악 쇄신운동(체칠리아주의)을 추진한 바도 있거니와 체칠리아주의의 핵심이론가였던 티보에 의하면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의 마음, 고민, 참회, 기쁨, 경배를 쏟아 놓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감사를 절제없는 환호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내적 열정을 가지고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그 무렵 활기를 띠던 흑인 영가와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백인영가 등이 혼합되면서 가스펠송이 불리어지게 되고 알기 쉽고 정열적인 가사와 리드미컬한 감미로운 선율은 교회 부흥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날 교회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복음송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예술성의 저하와 세속화의 영향으로 절제성을 잃고 인간의 감성에만 자극하는 음

악으로 경건성을 잃어가는 추세인 것 같다.

모세가 중거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였는데 이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 노래소리를 싸우는 소리로 들었다. 즉 경건하지 않고 절제성도 없고 아름답지 못한 합창이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큰 소리라도(시편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명령이 많다) 혼란되고 억제되고 정교하게 화음이 될 때에는 웅장하고 장엄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번 교회음악세미나는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기 위한 세미나로서 몇 달 전부터 각 찬양대 지휘자들이 강의를 준비해 왔다. 찬양대원들과 찬양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음악적으로도 좀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신실한 봉사자가 되어 구별되고 준비된 찬양으로 회중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성경강림주일에 생각해 보는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2).

■ '98홍해작전을 기다리며

“IMF의 홍해를 기도로 건너려고”

김규희 (집사, 제 6교구)

우리 부부는 홍해작전이 처음 시작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홍해작전이 전개될 때면 새벽마다 구역식구들과 서로의 새벽 잠을 깨워가며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개의치 않고 꾸준히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홍해작전 때마다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곤 하면서 혹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홍해작전이 시작되는 6월을 기다리게도 된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웠지만 올해는 모두가 어려운 때를 당해 어느 해보다도 주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작년 말 몰아친 IMF 한파는 우리 가족에게도 예외없이 불어 닥쳐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약속한 건축헌금을 바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더욱 감사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같다. 그간 남편을 위한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변화될지 늘 조심스러웠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IMF로 인한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더욱 위로하고 서로 신뢰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런 가운데 나도 남편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번 홍해작전을 잘 마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기도하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부푼 기대 속에 이번 홍해작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홍해작전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몰아닥친 IMF의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례자 컬럼

홍해앞에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애굽의 마법과 병거 탄 군대와 바로왕과 장관들까지 총출동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설상가상으로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아 절망은 극에 이르렀었다.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항거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작전을 위한 계획도, 도피할 어떤 방안도 제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홍해 앞에 무릎 꿇고 이 공포의 밤에 하늘을 우러러 전능자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장부담게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렸다.

그는 보았고 체험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지혜나 힘보다 더 크고 확실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분이 누구이신지 그는 알았고 전능자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 홍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 홍해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사랑부= 6월 4일(목) 오전 10시부터 올림匹克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 재오복 기자 -

◇ 유년부= 6월 4일(목) 경기도 양평에서 교사야외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오전 7시 30분에 한다.

- 이선주 기자 -

'98홍해작전
천국시민운동

교회당과 주변 대청소

'98 홍해작전 천국시민운동이 6일(토) 새벽기도회 후 펼쳐진다. 교구 식구들과 찬양대원들이 힘을 모아 교회당 내부와 교회당 주변

변의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홍해작전본부에서는 성도들이 당일 각 가정의 빗자루, 걸레 등 청소도구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구별 혹은 찬양대원의 청소담당 구역은 옆에 제시된 표와 같다.

담당교구	청소할 장소
1·2교구	1층
3·4교구	2층
5·6교구	3층
7·8교구	4층
9·10교구	별관
11·12교구	교회당 주변
찬양대원	옥탑층

등장

◆이종윤 목사는 1일(월)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법제화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모임을 주관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김갑수 성도(고 유복환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I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을 통해 진리 안에서 기록해질 수 있도록
2.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을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3. 6·4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